

고급두뇌 소확할 국립연구소 증설

필자는 2년 5개월 정도 단국대학교 이사장 일을 보면서 대학의 전임 자리 얻기가 정말 너무나 어렵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곤 했다. 1년에 한 번씩 교수를 공채하면서 서류를 심사해 보면 전임 한 자리를 놓고 대단히 우수한 후보자들이 평균 10명 정도 몰려들어 경쟁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철학 교수 1명을 공채하는데 무려 32명이 지원했던 경우도 있었다.

전임 자리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변함없이 실감할 수 있었다. 유아교육학 분야의 전임 한 분을 모시는데, 무려 37명의 후보자들이 지원한 것이다. 그들 가운데 10명 정도는 외국에서도 손꼽는 명문 대학들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치학 분야에서는 전임 두 분을 모시는데 무려 33명의 후보자들이 지원했다. 후보자들의 이력서를 읽노라면 전임 정원을 적어도 5~6명 더 늘리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정도였다.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잘 훈련된 고급두뇌들이 넘치고 있다. 몇 해 동안의, 평균적으로 말해 6~7년 동안의 외국 유학을 통해 어렵게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젊은 학자들이 전임 자리를 얻지 못한 채 이곳저곳으로 출강하며 아까운 많은 시간을 길에 쏟는 것을 보면 과연 나라의 인재 정책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래도 다행스런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학도 증설됐고 국책연구소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지방정부의 연구소도 늘어남으로써 그런대로 고급두뇌들을 흡수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태부족이다. 이 점은 특히 인문학 분야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심각하다.



인천대 총장 김 학 준

이래서는 안 된다. 더구나 우리는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제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그리고 그 경쟁에서 지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시대가 닥쳐오고 있음을 예견할 때 우리는 고급두뇌 양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대학의 전임 자리를 크게 늘려야 한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1차적으로 재단이 더 힘써야 하겠으나, 정부와 기업이 도와주어야 한다. 국·공립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예산을 아끼지 말고 교수 증원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것과 동시에 중앙정부가 학술원 산하에 국립연구소들을 많이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역사연구소, 국립철학연구소, 국립정치학연구소, 국립경제학연구소, 국립비교문화연구소, 국립법학연구소, 국립자연과학연구소 등 주로 기초학 분야에서 국립연구소들을 세워준다면 고급두뇌의 흡수는 물론 학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학문의 발달 없이 국가의 발달을 기약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일과 다름이 없다. 조선왕조만 보아도, 학문이 발달했던 세종대왕 때와 영·정조 시절에 국운이 융성해지지 않았던가.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21세기에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려면, 학자들을 잘 양성하고 후원해야 한다. 학자들의 학문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비로소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

15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이 문제와 연관해 좋은 공약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 필자는 어떤 후보보다도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좋은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이다. ♣